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가 사회적 정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차 운 아[†]

중앙대학교

Lakoff(2002)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nation-as-family metaphor)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도덕성은 각각 국가를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 또는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로 보는 서로 다른 가족 은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진영의 입장은 이러한 가족 은유의 가치와 연합되어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접화 기법을 사용하여 가족 은유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Lakoff가 언급한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의 도덕성을 접화했을 경우에 비해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의 도덕성을 접화한 경우에 참가자들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적 태도와 관점을 구성하는 요체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게 하며 특히 사회 정책의 결정 및 정치적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사회인지, 정치심리학, 보수주의, 진보주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 사회 정의

[†] 교신저자: 차운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02-820-5554, E-mail: ocha@cau.ac.kr

정치적 좌파(left)와 우파(right)의 구분은 프랑스혁명 시기인 1791년 프랑스의 입법의회에서 군주제를 옹호한 피앙파(Feuillants)를 비롯한 온건파들이 의장의 오른쪽에, 소시민과 민중을 대표해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 급진파인 산악파(Montagnard)는 의장석 왼쪽에 앉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Goodsell, 1988). 이러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미국의 정치적 보수주의(conservatism)와 진보주의(liberalism)에 대응된다. 비록 좌·우의 구분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완전무결한 구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난 200여 년을 통틀어 이러한 구분은 정치적 견해와 태도를 범주화하는 단일의 가장 유용하고 간명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다(Jost et al., 2003a, 2003b).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종식 이후 “이데올로기의 종말”의 선언과 함께 서구에서는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신념과 태도와 관련된 이슈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관심의 기저에는 Converse(1964)처럼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내적 응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입장과 더불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추상적인 신조가 공허한 울림으로 변모해 가면서 사람들을 동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쇠퇴하였으며, 더 이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적 관점 사이에는 관념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당시의 주장이 맞물려 있다고 본다(Jost, 2006). 그러나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부각된 보수와 진보의 극명한 대립구도와 새롭게 등장한 심리학적 패러다임에 힘입어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구성하는 심리학적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하는 핵심 차원과 그 기반을 이루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고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촉발되는 조건을 탐구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우선, Jost 등(2003a, 2003b)은 좌파/진보주의와 우파/보수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핵심 차원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좌파/진보주의와 우파/보수주의를 구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하지만 (1) 불평등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inequality)와 (2) 사회 변화 대 전통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social change versus tradition)라는 두 가지 핵심 차원에서의 차이만큼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두 가지 핵심 차원의 구분은 많은 정치학자들이 언급한 내용과 공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불평등하다고 믿기 때문에 불균등한 보상을 당연한 것으로 보며 전통과 안정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질서와 권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인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평등주의자들로서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고 계획적인 사회 변혁이 더 나은 삶을 가져올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Erikson, Luttbeg, & Tedin, 1988; Jost, 2006; McClosky & Zaller, 1984).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태도에 기반을 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관점은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지언어학자인 George Lakoff는 미국에서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가치와 도덕성을 전파하고 정책결정에 미치는 주요한 원천으로 은유(metaphor)에 주목

한다(Lakoff, 2002). Lakoff와 Johnson(1980)은 사람들은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익숙한 개념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개념들은 주로 은유 혹은 유비추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담화에는 은유가 만연해 있다고 본다. 은유는 가치와 신념을 조직화하여 특정한 정치적 행동의 패턴을 나타나게 하므로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특정한 정치적 태도와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George Lakoff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 (Nation-as-family metaphor)

Lakoff는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를 비롯한 일련의 저서를 통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Lakoff, 2002, 2004; 조지 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 2006). 그는 미국인의 정치적 세계관에는 국가는 가족이라는 은유적 이해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 국가는 가족이라는 은유에 따르면 “고국은 집이고, 국민은 형제자매이며, 정부나 정부의 수장은 부모”이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와 같다”(조지 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 2006, p.81). Lakoff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매우 상이한 이상적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인에게 있어 보수주의 및 진보주의의 관점과 그들이 취하는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은 국가를 어떤 형태의 이상적 ‘가족’으로 이해하는지 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Lakoff, 2002, 2004; 조지 레이코프·로크리지연구소, 2006). 보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엄격한 아버지” 모형을 선호하

는 데 비해, 진보주의자들은 이상적인 가족으로서 “자애로운 부모”의 모형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보수주의자들에게 바람직한 정치적 지도자란 “엄격한 아버지(strict father)”와 같은 것이다. “엄격한 아버지”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위험하며, 끊임없는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가족은 세상의 많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경쟁에서 승리하여 자신을 부양해줄 강한 도덕적 권위로서의 아버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바람직한 가족이란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에 기초하여 조직된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있어 “권위와 더불어 가족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된 책임은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아이들의 행동에 적용할 엄격한 규칙을 마련하며,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다”(Lakoff, 2002, p.33).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옳은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만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절제와 훈육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그에 복종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제심과 자기의존과 같은 덕성을 구축한다”(Lakoff, 2002, p.33).

이에 비해 진보주의자들에게 좋은 지도자란 “자애로운 부모(nurturant parents)”를 의미한다. “자애로운 부모” 모형에서는 자녀의 바람직한 도덕적 성장에 부모가 똑같이 책임을 가진다. 바람직한 가족이란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예 기반을 둔다. “자애로운 부모”의 모형에서는 “사랑, 공감, 그리고 자애로움이 일차적이며”(Lakoff, 2002, p.33), “가족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존중되며,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Lakoff, 2002, pp.33-34)을 통해 아이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인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즉, 부모의 주된 책임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가족 은유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도덕체제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보수적 도덕성의 핵심은 자기절제와 타인에 대한 통제에 있다. 권위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보수주의는 진보주의와는 달리 (1) 도덕적 권위의 원칙, (2) 개인적 책임의 원칙, (3) 자유시장의 원칙, (4) 자수성가의 원칙과 같은 네 가지 정치적 원칙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진보적 도덕성의 핵심은 공감과 책임에 근거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 상상하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족적 친밀감을 느끼는 능력이다”(레이코프 · 로크리지연구소, 2006, p. 86). 책임감은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진보주의는 보수주의와는 달리 (1) 공익의 원칙, (2) 자유 확대의 원칙, (3) 인간 존엄성의 원칙, (4) 다양성의 원칙의 네 가지 핵심적 정치적 원칙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했다.

Lakoff는 이와 같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서로 다른 가족 모형과 은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은유에 기초한 가치와 도덕성

체제가 빈곤,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태도, 테러리즘과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취하는 정치적 입장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불평등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부모”의 시각 차이

Lakoff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 분석은 특히 Jost와 그의 동료들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이데올로기 간의 차이를 가장 잘 포착하는 핵심 차원의 하나로 지정한 ‘불평등에 대한 태도’(Jost et al., 2003a, 2003b, Jost, 2006)에서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내며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진영이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드러낼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진보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자들인 데 비해, 보수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불평등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Erikson, Luttbeg, & Tedin, 1988). Lakoff의 은유와 연관된 세계관과 도덕성의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지며, 각각의 은유가 표방하는 세계관과 도덕성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귀인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애로운 부모”의 모형과 진보주의의 도덕성은 리더의 본질을 공감과 보살핌에서 찾으며 정치적 원칙으로 인간 존엄성의 원칙과 공익의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적 약자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정책은 물론 교육적 불이익, 문화적 편견, 인종차별적 징후, 고착화된 제도 등 복잡한 상황변인이 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들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이 아닌 사회와 정부에게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자기 절제와 책임감을 중요시하며 정치적 원칙에서도 개인적 책임의 원칙과 자수성가의 원칙을 강조하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형과 보수주의의 도덕성에서는 빈곤의 책임은 무엇보다 경제적 약자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자수성가의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부는 절제하고 도덕적이며 진취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며 자기 절제에 실패한 ‘비도덕적’인 인간이기 때문이고 사회와 정부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빈부의 격차는 절제와 근면의 도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불평등에 대한 기본 가정에서 비롯되는 차이와 더불어 삶의 조건의 개선과 향상에 대한 개인의 선택 여부와 통제가능성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수주의 및 진보주의적 관점에 따른 사회 정의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주의적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에는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많은 상황 변인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개인의 위치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결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사람의 위치는 개인의 내적 속성의 표현이며 개인

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Lakoff가 ‘가족으로서의 국가’ 모형에서 주장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과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이 실제로 사회 정의 판단에 대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입장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보수주의 및 진보주의에 대한 Lakoff 모형이 가지는 직관적 설명력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실제적으로 그 모형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최근 일부 연구가들이 Lakoff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 모형과 그 내용에 부합하는 심리적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대부분 참가자들의 자기보고에 의존한 정치적 성향과 Lakoff가 지정한 보수주의 및 진보주의의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로 Lakoff의 은유가 사회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가 상황 판단과 정치적 선택에 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점화 기법(priming technique)을 사용하였다. 즉, Lakoff가 주장한 대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적 태도가 각각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과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과 연관이 있다면,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상황적으로 유도한 “엄격한 아버지” 혹은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의 활성화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수주의적’ 혹은 ‘진보주의적’ 태도를 야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엄격한 아버지” 은유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적 도덕관에 따르면 개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은 개인의 나태와 부도덕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개

인의 탓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나 사회에 있기 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과 관련된 가치를 점화했을 경우,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과 관련된 가치를 점화했을 때에 비해, 주어진 사례의 주인공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엄격한 아버지” 은유를 점화했을 때 참가자들은 대상을 좀 더 미성숙하고 지적이지 못하며, 책임감 없고, 신중하지 못한, 믿음만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자애로운 부모” 모형에 비해 “엄격한 아버지” 모형에 기반을 둔 도덕관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이런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라고 여길 것이며, 따라서 주인공이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당연하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정부나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정심도 덜 느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주어진 상황이 개인의 선택과 상황에 대한 통제력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허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빈곤과 같이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사회적 상황과는 달리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객관적으로 그 상황이 초래한 경제적 난관에 대해 개인의 의지나 선택의 역할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보수주의자라도 상황의 불가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경제적 약자를 바라보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시각 차이는 개인의 의지와 선택이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참가자들은 인터넷 상에 개설된 미국 심리학 연구 공개 참가모집 사이트를 통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영어로 구성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북미, 서유럽권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자료를 연구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허락한 6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 중 남자는 20명(30.8%), 여자는 45명(69.2%), 참가자의 연령 평균은 27.8세(18세-57세)였다.

도구

연구는 가족으로서의 국가 도덕성을 점화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한 부분과 참가자 개인의 기본 정치적 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나누어졌다.

가족으로서의 국가 도덕성 점화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가 제시하는 진보주의 혹은 보수주의의 도덕성을 점화하기 위해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권장 자질”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유도하였다. 이 때 제시하는 다섯 가지의 자질은 도덕성 점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다. 보수주의 도덕성과 연관된 ‘엄격한 아버지’ 은유 점화 조건에서는 이 은유의 핵심적인 가치인 (1) 윤리적 기강, (2) 독립성, (3) 부모와 권위에 대한 존중, (4) 근면, (5) 결단력과 끈기가 제시되었다. 진보주의적 도덕성과 관련된 ‘자애로운 부모’

은유 점화 조건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권장 자질로 (1) 공감, (2) 도움, (3) 삶의 향유, (4) 호기심과 상상력, (5) 관용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가정으로서의 국가 은유를 점화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그 상황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의 사례를 구성하였다(부록 참고). 이 두 사례는 모두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의 사례로 구성되었지만,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다르게 조작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 사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가장인 41세 Paul의 상황으로 거주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인해 내려진 퇴거 명령을 어기고 가족과 함께 남아 있다가 홍수로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한 아이는 부상까지 당해 곤란에 처한 상황이 묘사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Paul이 처한 경제적 위기가 허리케인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므로 이 상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게 지각되도록 조작되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34세 Lisa의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는 있으나 육아 때문에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묘사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Lisa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뚜렷하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이므로 이 상황에서의 개인의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해석의 여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도록 조

작되었다.

각 인물에 대한 기술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은 주어진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였다. 첫째는 각 등장인물의 품성(character)을 평가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각 사례에서 묘사된 인물에 대해 어떤 인상을 형성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격 차원에서 얼마나 성숙한지(mature), 지적인지(intelligent), 책임감 있는지(responsible), 신중한지(careful), 믿을만한지(trustworthy)에 대해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주어진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주어진 상황의 책임 귀인과 그에 따른 사회적 판단을 알아보는 문항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이 주어진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는 “(해당 사례의 주인공)은 그 상황을 당할 만하다,” “(해당 사례의 주인공)이 상황에 책임이 있다”의 두 문항을, 상황의 책임을 해당 개인이 아닌 외부 상황에서 찾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는 “지방 정부가 (해당 사례의 주인공)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 “연방 정부가 (해당 사례의 주인공)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의 두 문항을 구성하여,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참가자의 기본 정치적 성향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기본 정치적 성향이 점화 조건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치들을 포함하였다.

개인의 정치적 태도.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자신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 1(매우 진보적)에서부터 9(매우 보수적)까지의 9점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였다. 평균은 3.97($SD=2.22$)로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자신을 다소 진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세계에 대한 일반적 신념. Dalbert (1999)가 개발한 공정한 세계에 대한 일반적 신념 척도(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GBJW)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체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럴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 등 전반적으로 세상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믿는지에 관한 신념을 측정하는 6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점 척도(1=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6=강하게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원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60에서 .75 사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1이었다.

사회적 지배 지향(SDO). 사회적 지배 지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SDO); Pratto et al., 1994)은 자신의 내집단이 다른 외집단을 지배하고 그보다 우월하기를 바라는 정도를 측정하는 성격변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단순히 열등하다”, “모든 집단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역문항)” 등의 16문항에 대해 7점 척도(1=매우 부정, 7=매우 긍정) 상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원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평균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절차

이 연구는 ‘사회 정의와 가치’라는 제목의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에 참가의사를 밝힌 참가자는 웹상에 연결된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먼저 간단한 설문 작성 요령을 확인한 후, 성별, 나이, 인종 등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를 입력하면 본격적인 설문이 시작되었다. 설문은 크게 도덕성을 점화하기 위한 ‘가치조사’ 부분과 도덕성 점화에 따른 사회적 지각을 살펴보기 위한 ‘사회적 정의 조사’로 나누어졌다.

먼저 ‘가치조사’는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가 제시하는 진보주의 혹은 보수주의의 도덕성을 점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권장 자질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엄격한 아버지” 은유 점화 조건에서는 이 은유의 핵심적인 가치인 (1) 윤리적 기강, (2) 독립성, (3) 부모와 권위에 대한 존중, (4) 근면, (5) 결단력과 끈기를, “자애로운 부모” 은유 점화 조건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권장 자질로 (1) 공감, (2) 도움, (3) 삶의 향유, (4) 호기심과 상상력, (5) 관용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제시하였고 이 자질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하도록 구성되었다. 각 참가자는 이 두 점화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택당되었다.

도덕성 점화가 사회 복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정의 조사’ 부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준 후 이들과 이들의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장혜택의 수혜자인 Lisa와 자연재해의 피해자인 Paul의 사례가 모두 사용되었다. 이 두 사례의 제시 순서는 피험자 간에 무선화되었으며 각 사례를 읽은 후 등장인물의 성품과 책임소재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세 가지 척도에 응답한 후 설문지를 종료하였다.

결 과

주분석에 앞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성향이 가족 은유 점화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보고된 정치적 성향, 사회적 지배 지향, 공정한 세계에 대한 일반적 신념에 대해 일방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점화조건에 따른 정치적 성향, 사회적 지배 지향, 공정한 세계에 대한 일반적 신념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모든 경우에 $F < 1$). 따라서 조작에 따른 효과는 개인의 장기적 성향이 아닌 점화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 연구의 주요관심은 가족 가치의 점화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등장인물의 성품 평가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 판단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품 평가(character judgment)

가족 은유 점화조건에 따라 경제적 곤란에 처한 등장인물의 성품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숙하다”, “지적이다”, “책임감있다”, “신중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의 다섯 가지 긍정적 성품 항목에서 등장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교하였다. 사례 유형과 점화조건에 따른 성품 문항 별 평정 평균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공감과 관용을 강조하는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에 비해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은 개인의 절제와 근면을 강조하므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을 점화한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부

표 1. 사례유형과 점화조건에 따른 성품별 평가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	점화조건	항목					
		성숙하다	지적이다	책임감있다	신중하다	믿을만하다	평균(표준오차)
Lisa	자애로운 부모(N=33)	4.33(1.14)	3.88(1.22)	4.24(1.64)	4.06(1.44)	4.06(1.25)	4.12(.20)
	엄격한 아버지(N=29)	3.55(1.53)	2.93(1.25)	3.21(1.50)	2.86(1.38)	3.76(1.53)	3.26(.22)
Paul	자애로운 부모(N=33)	3.64(1.06)	3.15(1.12)	2.85(1.18)	2.21(1.02)	3.30(1.29)	3.03(.17)
	엄격한 아버지(N=29)	3.69(1.44)	3.21(1.18)	2.86(1.22)	2.21(1.15)	3.69(1.17)	3.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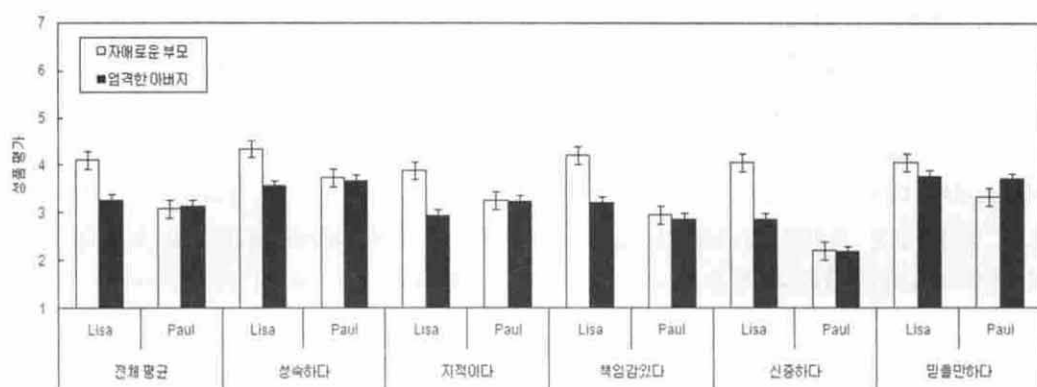


그림 1. 점화조건에 따른 Lisa(기초생활보장 수혜자)와 Paul(자연재해 희생자)의 성품 평가

족한 자질에 귀인하여 등장인물의 성품을 격하시키려고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특히 이러한 점화효과를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천재지변을 당한 Paul의 경우에서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의 통제가능성이 모호한 Lisa의 상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Lisa와 Paul의 사례 각각에서 다섯 가지 성품 항목에 대한 평가의 내적합치도를 확인해 본 결과 .90과 .86으로 높게 나타난 관계로 다섯 가지 성품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의 평균을 구한 후 이 점수에 대해 2(점화조건: 엄격한 아버지/자애로운 부모, 참가자간 변인) x 2(사례유형: Lisa/Paul, 참가자간 변인)의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¹⁾.

분석 결과 먼저 사례유형의 주효과($F(1,61) = 10.89, p < .01, \eta^2 = .15$)가 발견되었다. 사례유형의 주효과의 경우, 전체적인 성품 평가에 있어서 Paul에 대한 평가($M = 3.10, SD = .96$)에 비해 Lisa에 대한 평가($M = 3.72, SD = 1.22$)가 더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계선 상에서 유의한 점화조건의 주효과($F(1,61) = 3.85, p = .05, \eta^2 = .06$)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엄격한 부모의 도덕성을 점화했을 때 ($M = 3.20, SE = .15$)에 비해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을 점화했을 때 ($M = 3.60, SE = .14$) 등장인물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주효과의 의미는 사례유형과 점화조건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F(1,61) = 6.52, p < .05, \eta^2 = .10$)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진다. 여기서 확인된 상호작용효과의 패턴은 앞서 나온 Lisa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자애로운 부모” 점화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엄격한 아버지” 점화조건의 경우, Lisa와 Paul의 성품 평가에 있어 차이가 없었으나($F(1,28) < 1, p = n.s.$) “자애로운 부모” 점화조건의 경우, Paul($M = 3.03, SE = .17$)에 비해 Lisa의 성품($M = 4.12, SE = .20$)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F(1,32) = 20.71, p < .001, \eta^2 = .39$) (그림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와 연관된 도덕성을 점화하는 것이 사회적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1) 사례제시 순서는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인 점화조건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차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특히, 공감이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을 점화했을 경우에는 근면, 자기 절제와 같은 개인의 성품과 자질을 강조하는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을 점화했을 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성품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화 효과는 허리케인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천재지변의 경우(예, Paul의 사례)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는 사회적 상황의 경우(예, Lisa의 사례)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책임 판단(responsibility judgment)

가족 은유 점화가 등장인물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책임 귀인과 그로 인한 상황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책임 판단과 관련된 4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유형과 점화조건에 따른 각 문항 평균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은 개인의 절제와 근면을 강조하므로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

점화조건에 비해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 점화조건에서 등장인물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점화효과는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Paul의 경우에서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의 통제가능성이 모호한 Lisa의 상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황의 책임소재를 묻는 총 4개의 항목 중 주어진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지를 알아보는 2문항(“등장인물이 이 상황을 당할 만하다”, “상황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지를 알아보는 2문항(“지방정부가 책임이 있다”, “연방정부가 책임이 있다”)을 묶어 내부귀인과 외부귀인 측정치를 만든 후 각각에 대해 2(점화조건: 엄격한 아버지/자애로운 부모, 참가자간 변인) x 2(사례유형: Lisa/Paul, 참가자내 변인)의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책임소재를 개인에게 찾는 경향을 보여주는 내부귀인 측정치의 경우 먼저 경계선 상에서 유의미한 사례유형의 주효과($F(1,63)=3.64, p=.06, \eta^2=.06$)와 유의미한 점화조건의 주효과($F(1,63)=15.67, p<.05, \eta^2=.08$)가 관찰되었다. 사례유형 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인 Lisa의 경우($M=3.27, SE=.16$)에 비해 자연재해의

표 2. 사례유형과 점화조건에 따른 책임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	점화조건	문항			
		당할만하다	책임: 당사자	책임: 지방	책임: 연방
Lisa	자애로운 부모(N=35)	1.94(1.14)	3.74(1.52)	2.77(1.48)	3.17(1.79)
	엄격한 아버지(N=30)	2.83(1.42)	4.57(1.83)	3.04(1.60)	3.29(1.70)
Paul	자애로운 부모(N=35)	2.43(1.80)	4.40(1.91)	2.40(1.48)	2.60(1.70)
	엄격한 아버지(N=30)	3.17(1.93)	4.73(1.87)	2.57(1.48)	2.43(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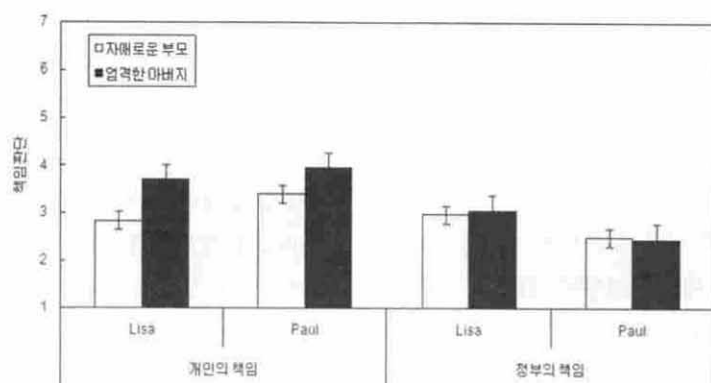


그림 2. 점화조건에 따른 Lisa(기초생활보장 수혜자)와 Paul(자연재해 희생자)의 책임 판단

피해자인 Paul의 경우($M=3.68$, $SE=.21$)에 좀 더 개인의 책임을 크게 인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Paul이 처한 상황의 경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으나 미리 발효된 퇴거명령을 무시한 채 남아 있다가 가족이 화를 당한 경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점화조건의 주효과와 경우 사례유형에 관계없이 “엄격한 아버지” 도덕성 점화조건($M=3.83$, $SE=.22$)에 비해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 점화조건($M=3.13$, $SE=.20$)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책임 귀인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점화조건과 사례유형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책임소재를 사회 특히 정부에서 찾는 경향을 보여주는 외부귀인 측정치의 경우 사례유형의 주효과($F(1,63)=6.10$, $p<.05$, $\eta_p^2=.09$)가 관찰되어 Paul의 상황에 비해 Lisa의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Lisa: $M=3.01$, $SE=.20$; Paul: $M=2.48$, $SE=.18$). 그러나 점화조건의 주효과나 점화조건과 사례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이 결과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진영의 정치적 태도를 설명하는 가족 은유의 역할에 대한 Lakoff(2002)의 분석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특히 이 연구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해석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와 관련된 도덕성의 점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즉,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권장 자질로 공감, 도움, 삶의 향유, 호기심과 상상력, 관용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이 진보주의와 연합된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만을 생각하게 했을 때에 비해 윤리적 기강, 독립성, 부모와 권위에 대한 존중, 근면, 결단력과 끈기와 같이 보수주의와 연관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성품을 깎아내리고 그 상황을 경제적 약자들의 개인의 책임으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윤리적 기강, 독립성, 부모와 권위에 대한 존중, 근면, 결단력과 끈기와 같이 자기

절제 및 개인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도덕성을 점화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와 관련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수주의의 정치적 원칙이라고 지적된 (1) 도덕적 권위의 원칙, (2) 개인적 책임의 원칙, (3) 자유시장의 원칙, 그리고 (4) 자수성가의 원칙은 주어진 사회적 체계에 순응하면서 자기절제와 성실성과 같은 개인적 미덕을 통해 노력을 경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와 개인의 성공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나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편으로 이러한 원칙이 경제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거나 사회적인 약자로 남아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는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의 이면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가정이 깔리게 된다.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을 점화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성품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높게 지각하는 현상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의 가설 중 하나는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 점화 효과가 특히 상황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통제력이 허용되는 경우에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천재지변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Paul의 경우와 경제적 빈곤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든 Lisa의 경우의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특히 성품 평가에 있어

서 점화효과는 Lisa의 경우에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Paul의 경우에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 점화에 의한 성품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Lisa의 경우에는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을 점화한 조건에서 대상에 대한 성품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책 결정이나 기부 문화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재해와 같이 명백히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이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모두 동의하지만, 상황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책임과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책임 판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점화효과의 상호작용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시나리오가 개인의 상황 통제력에 대한 차이를 조작하도록 고안되었으나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Paul의 경우에도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예, 퇴거명령 무시)를 포함하였고, 성품 평가에 비해 상황에 대한 책임 판단과 관련된 질문은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매우 명시적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따른 점화효과의 차이를 민감하게 잡아낼 수 없었던 탓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부귀인의 경우, 그 책임을

가능한 여러 사회 주체 중 ‘정부’에만 한정시켜 외부귀인에서의 차이를 잡아내는 데 제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개인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Lakoff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를 점화하는 것이 실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취하는 사회 정책의 선택과 결정의 기저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인과적으로 증명해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연구가들은 Lakoff의 모형을 비롯하여 심리학자들이 제기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Carney, Jost, Gosling과 Hoffer(2008)의 정치적 지향과 Big Five 성격과의 상관 연구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과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두 가지 특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개 표본 19,248명의 참가자를 포함하는 이 연구에 따르면 진보주의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6가지 하위 항목 모두에 걸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을 확인되었고 이에 비해 보수주의자는 Big Five 중 성실성, 그 중에서도 특히 성취지향과 질서 추구의 하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수주의자들은 규범화, 규칙준수, 질서정연함을 추구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진기함(novelty)과 창의성을 추구한다는 이론적 틀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최근 McAdams와 동료들(2008)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Lakoff의 “엄격한 아버지”

와 “자애로운 부모”의 은유를 Tomkins(1987)의 규범주의(normativism)와 인본주의(humanism) 이데올로기 스크립트와 연결하여 보수주의-규범주의는 (1) 엄격한 규칙 강화(rule-reinforcement) (2) 자기 절제(self-discipline)이라는 두 가지의 심리적 핵심 테마를, 이에 비해 진보주의-인본주의는 (1)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양육과 보살핌(nurturant caregiving), (2) 공감-개방성(empathy-openness)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 테마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들은 실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테마를 드러내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기독교신자 12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생애 12개 중요 장면의 서사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보수주의자들일수록 서사적 기술에 자기 절제의 테마가, 진보주의자들일수록 공감과 개방성의 테마가 많이 드러남을 보여줌으로써 Lakoff의 가정을 확인해 주었다(McAdams et al., 2008).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체적으로 자기 보고에 의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진보주의나 보수주의에 연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심리적 특성과 갖는 관련성을 탐구하는 데 그쳐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본 연구는 진보주의 및 보수주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러한 점화연구는 우리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결정요인에 관심을 갖게 한다. 정치적 태도에 관심을 갖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는지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일례로, Adorno와 동료들(1950)이 권위주의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을 주창한 이래로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RWA), Altemeyer, 1981, 1988, 1996, 1998)와 같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일치하는 태도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을 간과했던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내재된 도덕성과 가치를 이해했을 때 이를 상황적으로 유발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와 판단에 일시적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각은 정치적 보수주의를 동기화된 사회인지(motivated social cognition)로 이해하며 정치적 태도의 상황적 결정요인에 관심을 갖는 Jost 등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a). 이들은 보수적인 정치적 사고와 행동이 상황적으로 유도된 존재론적 위기나 위협, 혹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려는 욕구와 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론화하였다. 한 예로, 공포관리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TMT), Greenberg et al., 1990, 1992)에 의한 분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그에 부수되는 세계관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서 오는 존재적 공포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위해 존재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위협이 고조되면 사람들은 이를 완충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와 규범을 강화시키는 행동양식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Greenberg, Pyszczynski, Solomon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상황적으로 죽음의 인지적·정서적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예, Rosenblatt et al., 1989)은 문화적으로 가

치있다고 여겨지는 규범과 관행을 방어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것(Greenberg et al., 1990, 1995)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상황적으로 유도된 죽음 현출성(mortality salience)이 야기하는 효과는 일부 정치적 보수주의의 전통, 법과 질서, 권위에 대한 중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Jost와 동료들은 죽음 현출성과 정치적 보수주의의 관계가 일부 자료에서 지지됨을 지적한다(Jost et al., 2003).

이와 같이 Jost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지-동기적 분석은 상황에 의한 특정 태도, 신념, 목표와 동기의 일시적 활성화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적 태도와 행동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분석에 따르면 정치적 보수주의는 특정한 상황(예, 불확실성과 위협)에 대처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독특한 사고와 행동 패턴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위협이 고조되었을 때 정치적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단순히 개인이 보유한 불변 지속적 태도의 발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역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 점화 과정은 상황적으로 불확실성이나 위협을 유도하는 과정은 아니었으나, 불확실성이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과 가치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치적 진보주의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치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정치적 태도를 단순히 개인의 특질과 신념의 문제로 환원시키기 보다는 정치적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요인과 그 효과를 고려하는 데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Lakoff가 제안한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를 이용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은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연구 역시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서유럽권의 국적을 가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에서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좌파와 우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구분은 국가와 정치 형태를 넘어서 보편성을 가지는 정치적 구분으로 여겨지지만 그러한 구분이 Lakoff가 주장한 “자애로운 부모”의 은유와 “엄격한 아버지”의 은유 및 그에 상응하는 설명에 정확히 대응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적 진보주의 및 보수주의적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주효한 설명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그럼에도 Lakoff의 분석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가를 가족에 비유하는 설명이 우리에게 주는 직관적인 설득력 때문이다. 권보드래(2001)는 국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서구의 ‘nation’이 가족과의 관련을 간접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데 비해, ‘국가(國家)’라는 말은 단어 자체로서 나라와 집을 동시에 연상시킬 수 있다”(p. 64)고 지적하며 한국어의 ‘집’이라는 단어가 가족과 더불어 혈연 집단을 동시에 가리키는 특수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국가를 집 혹은 가족에 비유하는 것은 한국에서 전혀 낯선 것이 아니며 이러한 한국인의 경험과 역사를 고려할 때 한국인에게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는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찍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문화를 살펴 본 Kim(2002)과 Kim과 Park(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지도자의 자질로 후견주의적이며 강하고 도덕적일 것을 꼽아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가족으로서의 국가상이 “엄격한 아버지”의 은유에 근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한국의 정치적 문화를 살펴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한국인이 정치와 사회에 대해 가지는 불신의 이유와 개인의 정치 효능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한국인이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 한국의 가족 가치, 그리고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은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가 한국인의 정치적 보수주의 혹은 진보주의 성향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밑바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정치적 진보주의적 태도와 보수주의적 태도 역시 국가를 어떠한 형태의 이상적 가족으로 보는가의 관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Lakoff가 미국의 정치적 태도를 설명한 “자애로운 부모”와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과 원칙이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가능한지 검증하고 한국의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이루고 있는 도덕적 원칙과 심리적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를 점화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과연 보수주의-진보주의와 관련된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를 점화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관련이 없지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권위주의-민주주의 혹은 이성적-감성적 가치를 점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정치적 보수주의는 우익 권위주의와 같은 다른 심리적 경향과 높은 상

관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가치는 몇 가지 핵심차원에서의 대비되는 입장으로 규정되는 매우 다양한 가치들의 총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Lakoff가 정치적 입장에 있어 다양한 가치와 태도를 함축하여 전달하는 은유의 힘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가치와 완벽하게 분리되는 보수주의 및 진보주의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흔히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와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는 가족적 가치가 보수주의적 혹은 진보주의적 입장과 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이러한 가족적 가치가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Lakoff 역시 정치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엄격한 아버지” 가족가치의 지속적인 강조를 통해 미국의 보수주의 진영이 전략적으로 보수주의 가치를 설파하고 유지시키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인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의 효과 검증은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부모”라는 은유 자체를 점화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에 기반한 두 도덕성 점화 조건을 비교함으로써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과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 점화가 초래하는 영향의 차이를 보여줄 수는 있었으나 두 대립되는 점화조건만을 비교했을 뿐 통제조건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isa의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 점화가 상황적 고려를 추가함으로써 대상

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인지,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성 점화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대상을 더 가혹하게 평가한 것인지, 혹은 두 가지 효과가 함께 일어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와 연합된 도덕성 각각이 가지는 정확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점이 요구된다. 우선 “엄격한 아버지”나 “자애로운 부모”의 도덕성을 점화한다고 해서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가 된 다거나 그 역을 초래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실험 조작 후 측정된 정치적 태도, 공정한 세계에 대한 일반적 신념, 사회적 지배 성향이 점화조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이러한 점화가 보수주의적 사고 혹은 진보주의적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성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상황적 유도에 의해서 사람들의 판단이 보수적 혹은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점화기법을 사용한 연구의 성격 상 가족으로서의 국가 은유 점화가 정치적 태도와 입장에 미치는 효과는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 점화에 의해서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여러 사안에 대한 정치적 태도나 의견을 묻는 일반인 대상 설문이나 여론 조사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순간적인 판단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핵심 질문에 어떠한 가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어

떠난 상황 맥락이 주어졌는지에 따라 응답은 일시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여론이나 설문 결과는 정책 반영 및 사회분위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랫동안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타협 불가능한 별개의 실체로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구성하는 심리적 과정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각각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이론적 수단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구성하는 요체가 무엇인지를 심리학적으로 밝히고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요인과 그 과정을 이해한다면 중요한 정책 판단과 결정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보드래 (2001). 가족과 국가의 새로운 상상력: 신소설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10, 27-51.
- 조지 레이코프 · 로크리지연구소 (2006). *프레임 전쟁: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전략*. 창비.
- Kim, U. (2002). Democracy, leadership, and political culture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37-170.
- Kim, U., & Park, Y. S. (2005). Trust, relationship, and civil society in Scandinavia and East Asia: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133-161.
- Adorno, T. W., Frenkel-Brunswick, E., Levinson, D. J.,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ltemeyer, R. A. (1981).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Manitoba, Canada: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 Altemeyer, R. A. (1988). *Enemies of freedom: Understan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San Francisco: Jossey-Bass.
- Altemeyer, R. A.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ltemeyer, R. A.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 47-91). New York: Academic Press.
- Carney, D., Jost, J. T., Gosling, S. D., & Potter, J. (2008). The secret live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Personality profiles, interpersonal styles, and the things they leave behind. *Political Psychology*, 29, 807-840.
-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pp.206-261). New York: Free Press.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 79-98.
- Erikson, R. S., Luttbeg, N. R., & Tedin, K. L. (1988). *American public opinion* (3rd ed.). New York: Macmillan.
- Goodsell, C. T. (1988). The architecture of parliaments: Legislative houses and political

- cultur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 287-302.
- Greenberg, J., Porteus, J., Simon, L., & Pyszczynski, T. (1995). Evidence of a terror management function of cultural icons: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the inappropriate use of cherished cultural symbo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221-1228.
- Greenberg, J., Pyszczynski, T., Solomon, S., Rosenblatt, A., Veeder, M., Kirkland, S., & Lyon, D. (1990).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threaten or bolster the cultural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08-318.
- Greenberg, J., Simon, L., Pyszczynski, T., Solomon, S., & Chatel, D. (1992). Terror management and tolerance: Does mortality salience always intensify negative reactions to others who threaten one's world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12-220.
-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 651-670.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a).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b). Exceptions that prove the rule: Using a theory of motivated social cognition to account for ideological incongruities and political anomalies. *Psychological Bulletin*, 129, 383-393.
- Lakoff, G. (2002). *Moral politics: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think*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2004).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The essential guide for progressives*.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Adams, D. P., Albaugh, M., Farber, E., Daniels, J., Logan, R. L., & Olson, B. (2008). Family metaphors and moral intuitions: How conservatives and liberals narrate their l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978-990.
- McClosky, H., & Zaller, J. (1984). *The American etho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41-763.
- Rosenblatt, A.,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 Lyon, D. (1989). Evidence for terror management theory: I. The effects of mortality salience on reactions to those who violate or uphold cultur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81-690.
- Tomkins, S. S. (1987). Script theory. In J. Aronoff & A. I. Rubin (Eds.), *The emergence of personality* (pp.147-216). New York: Springer.

논문투고일 : 2009. 05. 14

1차 심사일 : 2009. 06. 05

게재확정일 : 2009. 08. 20

Are “strict fathers” harsher on those in need?: How priming nation-as-family metaphors affects judgement on social justice

Oona Cha

Chung-Ang University

Lakoff's (2002) 'nation-as-family' metaphor suggests that conservatism and liberalism in the United States are based respectively on two different sets of morality, i.e., “strict father” morality and “nurturant parents” morality. He argues that values associated with respective metaphors and political principles derived from them tend to determine certain political attitudes and policy endorsement. Using the priming techniqu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strict father” and “nurturant parents” morality are indeed what underlie very different positions conservatives and liberals take towards people in need. The results supported the Lakoff's idea and demonstrated that, compared to priming “nurturant parents” morality, priming “strict father” morality actually led people to derogate character of those in need and to attribute more responsibility onto them for their economic predicament. This research leads us to reconsider what constitutes politically conservative and liberal attitudes and emphasizes the malleability of political attitudes.

Key words : Social cognition, Political psychology, Nation-as-family metaphor, Social justice